

일 어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다음 글을 우리말로 옮기시오.

(총 25점)

- 1) 若年者の雇用状況は、その多くが自発的失業といわれ、生計費の維持がむずかしい中高年の失業者とくらべて、問題が深刻視されることは少ない。若年の離職動機として「仕事のこだわりがなくなった」ことによる就業意識の変化が取り沙汰され、さらには少子化によって親のスネをかじりやすくなったことなども強調される。

しかし、若年失業が増加する背景には、今後大きな社会的問題になる要因が存在している。それは、若年が仕事を通じて能力を開発・育成する機会が減退しつつあるという点である。中高卒の新卒採用者にとって、高密度の職場訓練の機会をこれまで提供してきた大企業への就業はほとんど不可能になりつつある。さらには雇用調整が新規採用の抑制によってなされているため、末端業務が一部の若年社員に集中し、若者の能力開発や育成を行う余裕が会社からなくなっている。中高年にくれば、若者には仕事があるといってもその内実を見る必要がある。労働条件が著しく厳しい仕事と熟練技能を要求しないような楽な仕事という二極分化が進んでいる。その状況は若年の高校卒ほど顕著である。苦しいながらも乗り越えれば仕事の喜びや誇りにつながり、業務を通じて自分自身の成長を実感できる「苦しいけど楽しい」仕事をもっと若者に増え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でなければ、熟練を通じて高い生産性を実現してきた日本人の人的資源は、確実に劣化の道を進んでいくだろう。(12점)

- 2) 今年で精神科医になって30年が経過した。この仕事についた頃から大きく変わったことの一つが「病室のづくり」だ。私が若かった頃は精神科病棟には6人から8人程度の患者さんがちょっとした広間のような畳敷きの部屋で入院というよりは共同生活を送っていた。なれない患者さんは「つらい」と言っていた。プライバシーがまったくなく、横になっても考えごとをしていてもまわりから丸見えだからだ。「自分のスペースが区切られていない」というのは、相当なストレスなのだ。

この間熊本と大分で起った地震の後、いまだに多くの人たちが避難生活を送っている。避難場所のほとんどは体育館などの広い場所で仕切りもない中、寝泊まりしている人たちもいる。「着替えをするのもひと苦労」「大勢の中で寝たことがないのでなかなか眠れない」といった声が出るのも当然だ。もちろん、いまは非常状態であるから、多少の不自由で文句を言う人はいない。とはいえ、だっ広い空間の中で大勢と一緒に暮らすのが、相当のストレスになっている人も多いのではないか。そうであっても被災者は、「食べ物がないんです」とは言えても、「隣のひととの間に仕切りがほしい」とはなかなか言えない。余震がある程度落ち着いたら、みなそれぞれの家に戻って傷んだところを直したり、仮設住宅に入ったりして生活を続けていくことになる。そのときに避難所でのストレスで心身に不調が出るのを少しでも防ぐために、避難所でもできるかぎりプライバシーが守られるよう工夫することが必要だ。もしまだのところがあれば、国が早急に簡易パネルを配布する、といったことはできないのだろうか。被災者には、少しでも安心できる環境で避難生活を送ってもらいたい。(13점)



제 2 문. 다음 글을 일어로 옮기시오.

(총 25점)

1) 일본정부는 AI(인공지능)가 제작한 음악·그림·소설 등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개정에 착수했다. AI를 활용하여 작품을 창작한 사람이나 기업에 투자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주고, AI 개발자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일본의 저작권법은 ‘인간’이 창작한 작품에 한해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저작물을 인간 고유의 영역인 ‘사상·감정의 창작 표현’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AI를 활용한 창작물이 도용되어도 그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AI 관련 기술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고 법령개정에 착수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현행법상 AI와 관련된 저작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AI 개발자의 공로를 인정하고 지키는 방향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2점)

2)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를 정보사회라고 부르고 있다. 방송, 통신, 컴퓨터 기술이 하나로 융합되면서 새롭게 등장하게 된 뉴미디어는 현대인들을 정보의 홍수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뉴미디어의 등장이 기존의 정보 축적 및 전송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인에게는 정보의 결핍에 따른 문제보다는 정보 과잉에 따른, 정보의 올바른 취사선택 문제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게 되었다.

정보사회에 대해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풍부해진 정보에 의해 현대인들이 과거보다 더욱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보사회가 우리에게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할수록 우리는 단편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지식의 시대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다. 정보가 바로 지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찾아낸 정보를 이해하고 흡수하여 최종적으로 통합하고 간직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지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13점)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장